

구로 아파트값 제일 많이 올랐다

올들어 평균 2.26% 올라... 강북구, 노원구, 도봉구 順

실수요자 5억대 중저가 아파트로 몰려
“전세값 높아지자 아예 매수로 돌아서”

올 들어 지난 8개월 동안 서울에서 아파트값이 가장 많이 오른 곳은 구로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각종 개발 호재뿐 아니라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 상한선인 9억원 이하 아파트가 밀집해 상승세를 이끌고 있다.

‘서울에서 집값이 가장 싼 동네’라는 수식어를 달던 구로구지만 최근엔 교통이 편리한 입지에 각종 호재까지 맞물려 주목받는 분위기가.

지난 8월 31일 한국감정원의 8월 마지막 주 ‘주간 아파트가격동향’ 자료를 보면, 올 들어 8개월 상승률 누적 기준 아파트 매매값 상승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구로구(2.26%)였다.

이어 강북구(1.67%), 노원구(1.55%), 도봉구(1.51%), 관악구(1.35%), 동대문구(1.28%), 영등포구(1.13%), 금천구(1.11%), 중랑구(1.04%) 순 이었다. 12·16 대책에 이은 6·17 대책, 7·10 대책으로 다주택자와 고가주택에 대한 규제가 강화된 가운데, 중저가 아

파트 위주로 실수요가 몰린 결과로 풀이된다.

오류동의 A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계속된 부동산 규제 속 등락을 거듭하는 다른 지역 분위기와 달리 구로구는 상대적으로 조용한 분위기를 유지했지만 최근 상황은 다르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짧은 기간에 호가가 폭등했거나 갑자기 이사하겠다는 사람들이 넘친 건 아니지만 출퇴근 시간 등을 고려해 서울에 꼭 살고 싶지만 마땅한 가격대를 찾기 힘든 이들의 문의가 잇따랐고 매매도 늘었다”고 말했다.

B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매물이 넘치지는 않지만 전용면적 84㎡의 매매가가 6억~7억원선이고 59㎡의 경우 5억~6억원대에 시세가 형성돼 있다”며 “서울에서 출퇴근 30~40분 거리에 이 정도 가격대 아파트를 찾기는 쉽지 않은 만큼 대출 규제 상황 등을 고려해 구로구 일대 아파트를 찾는 이들이 늘었다”고 설명했다.



올 들어 지난 8개월 동안 서울에서 아파트값이 가장 많이 오른 곳은 구로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각종 개발 호재뿐 아니라 주택담보대출비율 규제 상한선인 9억원 이하 아파트가 밀집해 상승세를 이끌고 있다. (사진은 관내 아파트단지)

오류동 일대는 편리한 교통여건을 갖췄지만 10억원을 훌쩍 넘는 서울 인기지역 아파트값 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해 최근 문의가 늘었다는 게 지역 공인중개업소의 공통된 설명이다. 실제로 오류동은 지하철 1호선 오류동역에서 광화문, 여의도, 종로 등 주요 업무지구 이동이 수월하다. 인근에는 7호선 천왕역도 있어 강남 업무지구 이동도 용이하다. <2면으로 계속> <김유권·채홍길 기자>

‘NC백화점’ 신구로점 11일 문연다

‘AK플라자’ 자리에 리모델링 마쳐... 도심형 아울렛 형태로



지난해 8월말 폐점한 AK플라자 구로점자리에 이랜드 ‘NC백화점 신구로점’이 1년여만인 오는 11일 새로 오픈한다. <사진은 ‘NC백화점 신구로점’ 전경>

자체 브랜드 등 270여개 점포 입점

지난해 8월말 폐점한 AK플라자 구로점자리(구로중앙로 152)에 이랜드 ‘NC백화점 신구로점’이 1년여만인 9월11일(금) 새로 오픈한다.

(주)이랜드리테일(대표이사 김우섭, 석창현)이 운영하는 NC백화점 신구로점 관계자는 “옛 AK플라자 구로점을 대대적으로 리모델링해 새롭게 단장하고 8월경 문을 열 예정이었지만 리모델링 공사가 지연되고, 코로나19 확대 등으로 인해 9월11일 개장한다”고 밝혔다.

도심형 아울렛을 표방하는 NC백화점 신구로점에는 자체 브랜드와 외식업체 등 270여개의 점포가 입점할 계획이며, 신규 직원은 지난 7월29일 구로구민을 우선으로 300여명 채용했고, 개점 후에도 100여명을 추가 채용한다. 구로구와 (주)이랜드리테일은 지난해 12월 NC백화점 신구로점 개점시 구민을 우선 채용하기로 하고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랜드리테일 관계자는 “이번 NC백화점 신구로점 개점을 계기로 이랜드가 강점을 보여온 아동복 브랜드 등 패션과 외식 브랜드와 유명 맛집을 입점 시켜 유통업계 트렌드인 식음료 분야도 강화해 서울 서남권의 대표 쇼핑몰로 자리매김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승엽 NC백화점 부지점장은 “코로나19 관련 방역 측면에서도 전담 방역조를 상시 투입해 방역에 집중할 계획”이라며 “외부 출입구에 설치한 40여개 센서카메라를 통해 실시간 고객의 동선 혼잡도를 측정, 안전한 쇼핑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NC백화점 신구로점은 연면적 10만여㎡(30,369평) 규모로 2개관각 7개층으로 지하 1층에 식품관, 푸드코트에 1층 잡화·영 케주얼과 커피숍, 2층엔 여성 의류, 3층 남성 의류, 4층 아동 의류, 5층엔 스포츠 및 서점, 6층 식당가, 7층 병원 및 미용실, 네일숍 등 270개 점포가 입점했다. <채홍길 기자>



서울오늘신문

서울오늘신문을 검색 하시면 많은 기사를 보실수 있습니다



부수인증매체 한국ABC협회

어느 마스크를 쓰시겠습니까?

남이 씹어줄 땀 늦습니다

I·SEOUL·U
나의 나의 서울

서울케어

서울 어디서나 마스크 착용 의무화

- 실내(운송수단 포함)/실외(집회 등 다중이 집합한 경우)
- *일상적 사생활·음식물 섭취 등 불가피한 경우 제외
- 위반하여 코로나19 확산 초래 시 구상권 청구
- 8. 24.(월) ~ 별도 해제 시까지

문의
02-120

구로구, 지방자치경영대전 '보건복지부 장관상' 수상

초등돌봄 사각지대 해소 '구로형 아이돌봄 체계 구축' 호평 작은도서관 등 기존 자원 활용, 온종일 돌봄센터 27곳 조성

구로구가 제16회 대한민국 지방자치경영대전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 지방자치경영대전'은 행정안전부가 매년 주최하고 있다. 창의적이고 특색 있는 우수시책을 공유해 지자체들이 접목 가능한 사업들을 발굴토록 하는 것이 행사 개최의 목표다.

올해는 지역경제, 안전, 일자리 창출, 문화관광, 농·축·특산품, 기업환경, 사회복지서비스, 환경관리, 지역개발, 공공디자인 등 10개 부문에서 93개 지자체의 235개 사례가 경합을 벌여 34개의 우수시책이 최종 발굴됐다.

구로구는 초등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구로형 아이돌봄 체계 구축'으로 사회복지서비스 분야에서 높은 점수를 받고 수상했다.

구로구는 핵가족화 심화, 여성 경제활동 인구 증가 등에 따른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구로형 아이돌봄 체계 구축'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왔다.

2018년 교육부 온종일 돌봄 선도 공모 사업에 선정돼 2년간 총 8억6,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구로구가 제16회 대한민국 지방자치경영대전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 지방자치경영대전은 행정안전부가 매년 주최하고 있다. 창의적이고 특색 있는 우수시책을 공유해 지자체들이 접목 가능한 사업들을 발굴하는 것이 행사의 목표다. (사진은 구로형 온종일 돌봄센터 참여기관인 오류1동 따뜻한이음청소년센터)

서울남부교육지원청과 구로형 아이돌봄체계 협약도 맺었다.

2019년에는 전담 조직을 구성하고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이를 기반으로 교청, 전문가, 돌봄기관과 온종일 돌봄협의회를 구성해 빈틈없는 지원이 가능한 민·관·학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특히 작은도서관, 마을활력소 등 기존 마을자원을 활용해 초등학생들이 도보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온종일 돌봄센터 27개를 조성하고 전문 기관을 선정해 다양

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돌봄사각지대 해소, 학부모 만족도 증가, 맞벌이 학부모의 경력단절 방지, 돌봄교사 직접고용으로 인한 신규 일자리 창출 등 다양한 성과를 이뤘다.

이성 구청장은 "이번 수상은 지역 주민과 구청, 학교가 함께 힘을 모아 이룬 결과"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정책 발굴을 통해 아이와 부모 모두가 행복한 아이 키우기 좋은 구로를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채홍길 기자〉

당명 변경 '국민의힘' 고강도 쇄신 '시동'

당무감사, 조강특위 구성 물갈이 나설 듯 내년 4·7재보선 기획단도 조기 출범

미래통합당서 지난 2일 당명을 '국민의힘'으로 바꾼 국민의힘은 비대위 출범 100일을 기점으로 당 내부 혁신을 위한 준비를 갖추며 고강도 쇄신 작업에 시동을 걸었다.

3일 국민의힘 고위관계자는 "9월 중으로 당무감사를 실시하고 조직강화특위를 구성하는 등 당 조직 혁신 작업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비대위 체제 들어 첫 당무감사인 만큼 내부 혁신에 방해가 됐던 원외 인사들을 쫓아내는 것은 물론 내년 4월 재보궐 선거에 대비하기 위한 다목적 포석 아니냐는 시각이 적지 않다.

당무감사와 맞물려 조강특위를 구성하는 점도 당 내 조직을 일신하는 측면에서 주목된다.

조강특위는 당이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당무감사의 결과와 조강특위 자체 기준에 따라 당협위원장 교체 여부를 판단할 수도 있어 인적 쇄신의 키를 쥌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전신 자유한국당 시절에는 김무성·최경환 등 현역 의원 21명과 원외 위원장 58명 등 총 79명의 당협위원장을 교체하는 인적 쇄신을 단행한 바 있다.

또한 국민의힘은 내년 4월 재·보궐선거 기획단도 조기에 출범시켜 체계적으로 선거 준비를 해나가기로 했다. 〈김유권 기자〉

“대학원생도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

서울시의회 이호대 의원, 관련 조례안 대표발의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호대 의원(사진·더불어민주당·구로2)이 대표 발의한 '서울



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이 지난 9월 3일 제286회 임시회 폐회 중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통과됐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이호대 의원은 "장기화된 청년실업과 고비용의 대학원 학자금대출로 인해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통과됐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이호대 의원은 "장기화된 청년실업과 고비용의 대학원 학자금대출로 인해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에 통과된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대상에 대학원생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 기간을 졸업 후 5년을 경과하지 않는 사람으로 확대 규정하고 있다.

행정자치위원회를 통과한 이번 조례안은 추후 본회의에 상정되어 가결되면 즉시 공포·시행된다.

〈채홍길 기자〉

구로 아파트값 제일 많이 올랐다

〈1면에서 계속〉

개봉동 역시 비슷한 분위기다. 역시 지하철 1호선 개봉역이 지나고 버스로 3~4정거장 거리에 7호선 광명사거리역이 있어 교통여건이 우수하다. 아파트값은 오류동보다 1억원 가량 비싸고 최근 시세가 수천만원 올랐지만 이곳 역시 문의가 늘었다.

개봉동 C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개봉역 일대에는 500~2000가구에 이르는 대단지 아파트가 8곳이나 있다"며 "평소 매매거래가 활발했던 곳은 아니고 대체로 실거주 위주지만 최근 구로구 아파트값이 많이 뛰었다고 하니 얼마나 올랐는지 궁금해 하는 집주인의 문의도 늘었다"고 귀띔했다.

서울에서 변방 취급을 받던 구로구 아파트값이 최근 쾅 이유는 신안산선 착공, 서부간선도로 지하화 등의 개발 호재가 힘을 보탬 영향도 있지만 정부의 규제 여파에 뒤늦게 가치를 인정 받았다는 시각도 있다.

고척동의 D공인중개업소 관계

자는 "구로구가 명문 학군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대중교통이나 편의 시설 만큼은 어디에도 뒤지지 않는다"며 "인기지역 규제에 따른 반사이익 여파를 부인할 순 없지만 구로구 자체가 품은 가치 또한 무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신도림동의 E공인중개업소 관계자도 비슷한 생각이다. 그는 "지하철이나 시내버스 외에도 경인로, 서부간선도로, 남부순환로 등 서울 주요 업무지구로 이동이 편리한 도로망이 구로구를 관통한다"며 "10억 이상의 비싼 아파트를 사느니 그 값으로 더 넓은 면적을 사겠다는 실수요자가 최근 구로구를 주목하는 분위기"라고 분석했다.

이런 실수요자들의 매수세는 8월 들어서도 꺾이지 않고 있다. 직방이 집계한 '8월 서울시 자치구별 면적유형별 최고가 경신 거래건수' 자료를 보면, 8월 이뤄진 아파트 매매거래 가운데 과거 최고가와 같거나 더 비싸게 거래된 사례가 제일 많은 곳이 강서구(72건)였다. 이어 노원구(66건), 강동

구(59건), 은평구(54건), 구로구(49건) 등으로 중저가 아파트가 많은 곳이 뒤를 이었다.

부동산중개업소 관계자는 "전세값이 매매값보다 강세를 보이는 상황에서 전세를 포기하고 매매를 선택하는 수요가 5억원대로 평균 매매값이 형성된 중저가 밀집지역으로 몰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국감정원의 8월 마지막 주 주간 아파트가격동향 자료를 보면, 서울의 아파트 매매값은 지난 주 0.02% 상승한 데서 0.01% 상승으로 거의 보합 수준으로 안정된 데 반해 전세값은 지난 주 0.12% 상승에 이어 이번 주도 0.11% 상승으로 높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한편 지난 8개월 동안 아파트 매매값이 제일 많이 떨어진 곳은 서초구(-1.97%)였다. 강남구(-1.89%), 송파구(-1.02%) 등 강남3구는 모두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한국감정원 주택통계부 관계자는 "6월과 7월 반등한 것은 맞지만 12·16 대책 직후 하락한 게 있어 누계로는 마이너스가 나왔다"고 말했다.

〈김유권·채홍길 기자〉

서울남부교육지원청 박래준 신임 교육장 부임

서울 남부교육지원청 제32대 박래준 신임 교육장(사진)이 지난 9월1일 부임했다.



신임 박래준 교육장은 서울교대를 졸업하고 단국대학교 교육대학

원에서 석사학위를 받고 1986년 양천초등학교에서 교직생활을 시작, 2004년 2월까지 17여년간 교사로 재직 후 서울시교육청 초등교육과 장학사, 당산초 교장, 강서양천교육지원청 초등교육과장, 중부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장을 역임하는 등 일선학교와 교육행정기관을 두루 거쳤다. 〈채홍길 기자〉

주간	구로오늘신문	주소: 서울시 구로구 경인로 55길 51 한성상가 B동 325호 전화: 02)830-0905 메일: news121@empas.com
홈페이지: http://gurotoday.com 다음카페 구로오늘신문		
회장: 유희상 주간: 한만수 등록번호: 서울 다-5105 구독/광고문의 010-9096-1144	발행인: 김유권 편집국장: 채홍길 서울 다-5105	구독료: 월 5,000원·연 50,000원 기사제보: 02)830-0905 계좌번호: 우리은행 예금주 김유권 1002-347-553475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주간신문 윤리실천 요강을 준수 합니다		

국내 최대 병원설비기업 G밸리 소재 (주)하나지엔씨 음압병실 설계·기기제작·시공·유지보수 ‘원스톱 처리’

요즘 코로나19로 인하여 음압 치료 병동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관내 구로3동 G밸리소재 (주)하나지엔씨(HANA G&C CO.LTD 대표 박동일)는 국내 병원설비 전문기업이다.

국내 음압병실분야 최다 실적을 보유한 하나지엔씨는 국내·외 기술기준 개발, 설계, 기기제작, 시공, T&C(Test & Commissioning), 유지보수를 일괄로 처리할 수 있는 의료복지시설, 장치 전문기업이다. 음압병실은 일반병실과 다르게 국가 음압 격리병동 시설기준에 따라 설계, 시공, 유지관리까지 시행해야 한다. 하나지엔씨는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1,000병상급 30곳 이상의 다양한 병원 의료원, 보건소 등에 납품실적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강점이다.

인하대 병원 음압격리병동을 시공한 것을 비롯해서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 △서울대병원 △고려대병원 △경북과학기술원(DGIST) △판교SK R&D센터 △국립암센터 △부산대학교어린이병원 △건국대병원 등을 시공한 하나지엔씨는 명실상부한 국내 최고의 실적을 보유하고 있다.

특히 △인공지능형 공기차압장치를 이용한 세균오염 방지시스템 △무균병실용 무균수 공급장치 △바이오클린룸 세균오염방지시스템 △습식 공기청정장치 등 국내외 바이오메디칼 관련 특허도 20여건 이상 보유하고 있으며 국제인증(CE) 규격을 획득해 해외에 국산 기자재 등을 설계, 납품, 시공, 운영까지 전공정을 제공하는 전문기업으로 성장했다.

□세계 최초 이동식 음압기 개발

특히 최근에는 이동형 음압부스 및 음압기, 의료진 감염예방용 클린패널, 오염공기 살균기 등을 개발해 전국 의료시설에 제품을 공급하고 있다.

외국의 관련기술을 최초로 국산화에 성공했으며 꼭 필요한 부분만 수입 대체해 국제기준과 국내 기준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기술을 확보, 국내 보급은 물론 수출도 병행하고 있다.

하나지엔씨가 개발한 이동형 음압부스·음압기는 실내·외 어느 장소에서든 감염병 환자를 신속하게 격리, 치료할 수 있는 음압실을 구성해 환자와 의료진을 완벽하게 분리한다. 환자의 바이러스로부터 의료진을 보호할 수 있고 바이러스가 외부로 전파되지 않도록 배기공기를 1, 2차 처리할 수 있다.



박정일 대표가 지난 4월 5천만원 상당의 이동형 음압부스·음압기를 서울시보건소에 10대를 기증했다.



(주)하나지엔씨 박정일 대표



(주)하나지엔씨가 설치한 음압병동.

이동형 음압기는 1,200CMH 저소음 고정압 인버터 팬을 사용해 환자에게 편안함을 제공하며 병실 크기 변동에 대응해 차압을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다. 오염공기를 처리할 수 있는 헤파필터 혹은 울파필터를 장착해 완벽한 음압형성으로 치료자의 안전을 보장하고 클러스터 이온나이저로 배기 오염공기를 살균처리하는 기능을 갖췄다.

의료진 감염예방용 클린패널은 완벽한 기류형성으로 의료진과 감염병 환자가 공기오염으로 의료진이 전염되는 것을 방지하는 안전

기초로 해외에서 다년간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국산화에 초점을 맞춰 운영해 왔다. 현재는 한국이 세계 최고의 IT기술 강국인 것을 바탕으로 선진국보다 우수한 시스템 구축과 ICT기술을 바탕으로 기술 수출을 진행하고 있다. 지금도 전 직원이 하나가 돼 기업의 정체성을 살릴 수 있는 기술개발에 매진하고 있다.

2015년 메르스 사태 이후 국가 지정 음압치료병동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어 △안전 최우선(의료진, 환자, 관리자의 안전) △에너지절

제어시스템을 구축했다.

□수배관 사업에도 진출

박정일 대표는 우연한 기회에 대한설비공학회 공조분과에서 하이드로닉(hydronic)에 대한 기술을 접하게 됐다. 현재 국내 설비설계 기술 중 가장 취약 부분이고 이 부분을 해결하지 못하면 에너지와 온실가스 감축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할 수 없음을 알게 돼 사명감을 갖고 시작하게 됐다.

현재 협력하고 있는 회사는 영국의 IMI이다. IMI 모태는 스웨덴

운영하고 있다.

박정일 대표는 국내 수배관시스템의 문제점들을 하나씩 해결하기 위해 에너지기술평가원에 ‘건물용 냉난방배관, 순환펌프 및 유량조절밸브 선정을 위한 수배관 해석 프로그램’을 제안했으며 한국의 HVAC시장 변화와 에너지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지엔씨 주도의 프로그램 개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연구기간은 2년이며 경희대학교, 삼신설계, 삼양발브종합메이커, 한국건물에너지기술원 등이 참여하고 있다.

현재 수배관시스템의 경우 시스템 구성에 필요한 유량분배밸브, 배관 사이즈 및 유량 제어 밸브 등의 선정에 대해 계산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국내 기술로 개발된 프로그램이 없어 해외에서 개발된 제한적인 기능을 갖는 프로그램이 소개되고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해외 소개 프로그램은 설계사나 시공사 엔지니어들이 쉽게 배우고 익힐 수가 없어 사용 빈도가 매우 낮으며 국내 라이선스 등 문제로 사용기간도 제한적이다.

이번 수배관 계산 프로그램 개발은 지난 50여년 이상 국내 냉난방 수배관시스템 설비설계에서 적용하지 못하고 있는 수배관시스템 계산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이동식음압기 서울시 10대 기증

박정일 대표는 지난 4월 코로나19로 인해 일어난 재난 상황에서 대응제품을 발빠르게 개발해 5천만원 상당의 감염병 대응 위료기기를 서울시 및 지자체 보건소에 기증했다. 이동형 음압부스·음압기를 서울시에 10대 기증했다. 금천구 보건소에도 1대를 기부, 의료진 감염예방용 클린 패널을 파주시 보건소에 기부하며 기계 설비 분야의 사회공헌 활동에 앞장 서고 있다. <한민수 기자>

1000병실 대형병원·의료원·보건소 30곳에 납품 음압부스·이동식 음압기, 오염공기 살균기 등 개발 박정일 대표, 이동식 음압설비 10대 서울시 기증

장치다. 오염공기 살균기는 감염병 바이러스의 살균·탈취기능을 수행하며 오염 배기공기를 처리하는 동시에 다량의 음이온을 생성하는 장치다.

또한 건축물에너지절감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냉난방 수배관시스템에 적용하는 복합밸브를 이용, BEMS와 연동해 에너지를 절감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선진국 문헌과 기술 벤치마킹

박정일 대표는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산업공학과를 졸업하고 중동 북미 한창이던 1980년대 초반 대림산업 기계부에 입사해 쿠웨이트, 사우디아라비아 등 건설현장을 누볐으며 중견기업인 신성이엔지에서 근무하다 하나지엔씨로 1994년 독립했다.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에너지 환경대학원 기계설비공학을 졸업하고 공학박사 학위를 뒀다.

창업 초기에는 국내 기자재와 기술력이 부족해 미국, 유럽, 일본 등 선진국의 각종 문헌과 기술을

감(전외기, 전배기 대응) △시설 운영(안전과 에너지, 하차시 안전하고 신속한 대응) 등을 최우선 과제로 시공했다.

가장 중요한 안전을 위해 동선구획과 활동동선의 SOP작성 및 출입문 등 감응식 시스템과 모니터링, 2차 감염 방지를 위해 완벽한 실간 차압 제어시스템을 구축했다. 출입구에 전실을 만들어 순간적으로 음압이 파괴되는 것을 방지하며 덕트 및 벽체 도어의 기밀성을 유지해야 한다.

이러한 안전성 확보 후 전외기·전배기에 따른 에너지절감 대책을 수립했다. 가변 풍량방식을 채택해 차압이 우선된 후 온도제어를 하고 공조기 배기팬의 인버터제어 방식과 차압제어시스템 구축으로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냉·온수 방식 최적화 및 에너지 30% 절감을 위한 차압, 유량, 온도제어 동시만족 PIBCV(압력독립형 밸런싱컨트롤 밸브) 채택 시스템, 전외기 방식에 따른 동절기 동과방지 및 중간기 온도

TA라고 불리던 회사이며 현재는 영국의 IMI로 합병돼 IMI-TA로 알려져 있다. 130년간 오직 HVAC의 냉난방 Hydronic기술만을 고집하고 있으며 유럽의 대학에서 강의용 자료(책) 발간, 냉난방 수배관 전문 프로그램, 밸브 하나씩을 일일이 체크할 수 있는 측정기기(TA-SCOPE), 어느 회사도 따라올 수 없는 PIBCV(복합밸브) 등 기술력의 차이를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기술력을 보유한 기업이다.

밸런싱 밸브, 압력독립형 밸런싱 컨트롤밸브(복합밸브)를 최초로 제조했으며 세계 최고층 건물인 두바이타워 등 20만개 이상의 건물에 적용 실적을 보유하고 있다. 현재 전 세계 69개국에 판매망을 갖고 있으며 세계 최초, 최고의 수직수가 부끄럽지 않은 회사다.

국내에는 토탈 수배관시스템의 경우 열원장비인 냉동기, 보일러, 열운송 장비인 펌프, 열원 사용기인 공조기, 팬코일 유니트, 그리고 이 모든 장비를 제어하는 자동제어로 나뉘어 공급, 설치,

“자랑스런 여러분들이 있어 구로가 행복합니다”

제30회 ‘구로구민상’ 9개부문 14명 수상자 선정

7일 구민회관 구로 ‘G페스티벌’ 구민의 날 기념식서 시상식



제30회 구로구민상 시상식이 지난 7일 오후 3시 구민회관에서 ‘G페스티벌’ 구민의 날 기념식에서 이성 구청장, 박동웅 구로구의회 의장, 최문식 구민상 공적심사위원장과 수상자 14명 등이 참석한 가운데 온라인으로 진행했다. 구로구는 구정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한 모범 구민을 발굴, 포상해 구민의 귀감이 되도록 하기위해 매년 구민상 대상자를 선발해 시상하고 있다.

제30회 구로구민상 시상식이 지난 7일 오후 3시 구민회관에서 ‘G페스티벌’ 구민의 날 기념식에서 이성 구청장, 박동웅 구로구의회 의장, 최문식 구민상 공적심사위원장과 수상자 14명 등 최소한의 인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사회적 거리두기’를 준수, 온라인으로 진행했다.

이날 행사는 이정훈 아나운서 사회로 국민의례, 내빈 소개, 이인영 통일부장관(더불어민주당 구로갑 국회의원)과 윤건영 구로읍 국회의원의 영상 희망메시지와 국내외 자매도시 단체장의 영상 축하메시지, 이성 구청장 인사말, 최문식 공적심사위원장의 수상자 발표에 이어구민상 시상식이 거행됐다.

구로구는 구정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한 모범 구민을 발굴, 포상해 구민의 귀감이 되도록 하기위해 매년 구민상 대상자를 선발, 시상하고 있다.

구는 지난 7월 8일부터 8월 11일까지 한 달여 동안 봉사, 효행, 문화예술, 교육, 생활체육, 지역사회발전, 안전, 경제 발전, 환경 등 9개 부문을 대상으로 구민상 대상자를 공모, 총 30명을 접수 받아 8월 24일 구로구민상 공적심사위원회(위원장 최문식 구로문화원장)위원 11명이 9개 부문에서 14명(봉사 4명, 지역사회발전 2명, 효행 2명, 나머지는 부문별 1명씩 선정)을 최종 수상자로 선정했다.

▲**봉사부문** 강명철(58세·개봉2동)씨, 유재순(64세·구로2동)씨, 이정희(66세·수궁동)씨, 황학모(57세·신도림동)씨 4명
▲**효행부문** 김선순(51세·고척2동)씨, 이인옥(62세·구로4동)씨 2명 ▲**문화예술부문** 정근영(53·개봉1동)씨 ▲**교육부문** 김철순(63·구로4동)씨 ▲**생활체육부문** 강정순(69세·오류2동)씨 ▲**지역사회발전부문** 공태균(42·고척1동)씨, 이상덕(65세·구로5동)씨 2명 ▲**안전부문** 정범제(70·구로4동)씨 ▲**경제발전부문** 이화주(65·가리봉동)씨 ▲**환경부문** 정태충(65·개봉3동)씨다.



강명철씨



유재순씨



이정희씨



황학모씨



김선순씨



이인옥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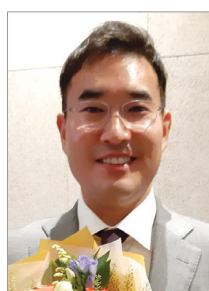
정근영씨



김철순씨



강정순씨



공태균씨



이상덕씨



정범제씨



이화주씨



정태충씨

봉사부문

□ **강명철** (58세) 어르신 식사대접, 지수리 봉사 등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웃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봉사활동에 앞장서고 있다.

□ **유재순** (여 64세) 저소득 어르신 식사 대접, 저소득가정 나눔행사 및 깨끗한 구로가꾸기 사업 참여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꾸준히 전개하고 있다.

□ **이정희** (여 66세) 꾸준한 기부활동과 장학금 발굴 및 학업 지원 등 다양한 복지체계에 참여하는 등의 봉사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

□ **황학모** (57세) 음식 무료나눔 등 저소득 어르신을 위하여 나눔 봉사를 실천하여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활동에 적극 나서고 있다.

효행 부문

□ **김선순** (여 51세) 치매를 앓고 계시는 시할머니를 시어머니를 대신하여 10여년 동안 돌보며 정성어린 병수발을 하고 있다.

□ **이인옥** (여 62세) 직장암으로 암투병중이신 시어머니 및 친정어머니를 지극정성으로 병수발을 하고 있어 주의에 칭송이 자자.

문화예술 부문

□ **정근영** (53세) 다양한 전시 및 프로그램으로 지역주민과 소통하고 있으며 구로미술전 개최 등으로 주민과의 문화적 소통에 힘쓰고 있다.

교육 부문

□ **김철순** (여 63세) 동장학회 구성 및 운영에 기여하며 아울러 관내 저소득가정 청소년들의 학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생활체육 부문

□ **강정순** (여 69세) 어르신 생활체육활성화에 기여하고 게이트볼장의 낙후 및 불편시설 개선에 힘쓰는 등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지역사회발전 부문

□ **공태균** (42세) 어르신 주간보호센터를 개원하여 지역사회 내 어르신의 정서적 안정에 기여하는 등 지역사회발전에 공헌하고 있다.

□ **이상덕** (65세) 어르신 지원 사업 및 소외계층 지원에 적극 참여하고 후원함으로써 지역사회복지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안전 부문

□ **정범제** (70세) 안전캠페인 및 지역자율방재단 활동으로 구로구 내 위험발생 요인 차단 등 안전예방 활동에 공헌하고 있다.

경제발전 부문

□ **이화주** (여 65세) 물가안정 캠페인 실시 및 불공정 상행위 지도 점검으로 지역사회 건전한 상거래 질서 확립에 기여하고 있다.

환경 부문

□ **정태충** (65세) 정기적인 방역활동, 하수구 방역, 개봉천 숲속 방역, 골목 오물수거 등 주민의 생활 환경 개선 및 질병예방에 기여하고 있다.

(김유권·채홍길 기자)

경로당 어르신들 “코로나19·수해 극복” 100만원 기부

음식·과일 나눔, 수해복구 물자 전달, 쌀·생필품 등도 이어져

구로구 주민들이 코로나19와 수해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위해 나눔의 손길을 보내고 있다.

최근 수궁동에서는 온수경로당 어르신들이 직접 모은 성금 100만원을 동주민센터로 기부했다. 이 금배 회장은 “코로나19 장기화에 수해까지 겹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기부 이유를 밝혔다.

이달 9일 구로3동 자원봉사캠프(캠프장 박성희)는 흠뻑어르신 30가구에 냄비받침, 수세미, 부채 등 물품과 간식을 전달한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전달식은 열지 않고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수령토록 할 계획이다.

지난달 28일 개봉1동 적십자봉사회(회장 권경혜)는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홀몸, 저소득 어르신 50명에게 육개장과 밀반찬을 포장해 개별적으로 전달했다.

이날 구로2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차정희)도 저소득 어르신 50명을 대상으로 갈비탕과 반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2	3	4	5
		6	7	8	9	10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구로구의 대표적인 축제 '2020 구로G페스티벌(Jump Guro & Asia Culture Festival)'이 지난 1일부터 27일까지 온라인으로 열리고 있다.

찬을 제공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인파가 몰리지 않도록 시간을 조정해 동주민센터에서 포장된 음식을 나눠드렸다. 음식은 구로2동 소재 식당 하루리매운명품양판 갈비찜(대표 이성희)이 후원했다. 구로5동에서는 지난 20일 영등포농협 구로본지점(지점장 허용강)이 복숭아 4.5kg 40박스를 구로노인종합복지관, 장애인작업시

설, 지역아동센터 등 4곳의 복지 시설에 기부했다. 장마철 수해를 입은 도시를 위한 물품 지원도 이어졌다. 구로구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회장 박완권)와 구로구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협의회(위원장 이상덕)도 각각 300만원, 100만원어치의 쌀을 충북 단양군, 전남 구례군에 기부했다. <김유권 기자>

유희상의 열린 칼럼



전이나 지금이나 아이들이 두 발 자전거를 탈 무렵이면 어느 정도 철이 든다. 네 바퀴 자전거를 탈 때는 부모의 보호가 필요하다. 스스로 두 바퀴를 탈 나이가 되면 나름대로 페달을 빨리 돌리면 자전거가 빨리가고, 천천히 돌리면 천천히 간다는 사실도 스스로 터득한다.

때 만족한 환경이 되고, 이 세 가지 중에 어느 하나라도 부족하게 되면 기름진 삶을 살 수가 없다. 자전거 페달을 천천히 밟으면 넘어지지만, 빨리 가고 싶다고 해서 너무 빨리 페달을

자전거 타기㉞

는 것도 자전거가 넘어지지 않을 정도의 속도는 필요하다. 더 느리게 돌리면 자전거는 앞으로 가지 않고 넘어진다. 동물은 주어진 환경에서 주어진 먹이만 먹으면 그만이지만 인간은 스스로 환경을 만들어 가는 능력이 있다. 사람의 환경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의·식·주이다. 이 세 가지가 만족을 줄

밟으면 지쳐서 멀리가지 못하고 자전거에서 내릴 수밖에 없다. 환경을 조성해 가는 과정도 그렇다. 어느 통계에 의하면 로또복권에 당첨된 사람 중 90% 이상이 불행한 환경으로 추락한다고 한다. 로또에 당첨되어 보지 않은 사람들은 이해가 되지 않는 통계 일 것이다. 그러나 자전거 타기와 인생을 비교해 보면 통계가 정확하다고 인정이 된다. 급히 먹는 밥이 체하는 것처럼 정신없이 페달을 돌린 까닭일 것이다. <본지 회장>

오류동 '충남서울학사관' 완공 입주

충남출신 수도권 대학생 기숙사... 지하 2층·지상 12층 규모

오류동 소재 충남서울학사관 준공식이 지난 31일 오후 3시 오류시장 옆 학사관에서 양승조 충남지사, 이성 구로구청장, 박동웅 구로구의회 의장, 문헌일 충남도민회 중앙회 회장 겸 충청향우회 중앙회 공동대표(문엔지니어링 회장) 등 각계 인사와 학생, 학부모 등 최소한의 인원만 참석한 가운데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충남서울학사관은 충남 출신 수도권 소재대학(서울·인천·경기)에 재학중인 대학생들의 거주비 부담 해소와 쾌적한 면학 환경 제공을 위해 (재)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이사장 양승조)에서 운영하는 학생기숙사로, 대지 2,149㎡에 연면적 6,374㎡ 규모로 지하 2층,

지상 12층으로 학습시설 및 입학생의 편의증진을 위한 부대시설도 갖췄다. 학생들에게 월 20~25만원의 저렴한 기숙사비로 1일 3식을 제공한다. 양승조 충남지사는 “서울학사관 개관을 통해 우수한 지역인재들이 미래를 그려나갈 공간이 생기게 되어 감격스럽다”며 “서울학사관이 220만 충남도민들의 염원으로 마련된 자랑스러운 결과물임을 기억하고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채홍길 기자>



오류동 소재 충남서울학사관 준공식이 지난달 31일 학사관에서 각계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사진 왼쪽 3번째부터 이성 구청장, 문헌일 충남도민회 중앙회장, 양승조 충남지사, 박동웅 구로구의회 의장>



당신이 희망입니다

거창하거나 부담스럽지 않게, 누군가의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구로희망복지재단과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더 쉽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작은 씨앗이 꽃을 피우고 열매 맺듯이, 당신의 작은 관심이 누군가에게 희망의 꽃을 피울 것입니다.

구로희망복지재단과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경제적 어려운 이웃을 지원합니다.

지원문의 : 구로희망복지재단 02)867-1695
후원계좌 : 우리은행 1005-102-577423 사회복지공동모금회

15만 G밸리인축제 '비대면 G밸리 위크' 열린다

9일~11일 구로공단 노동자생활 체험관 특별전 등 다양

서울시는 1만1000여 개 기업이 동지를 틀고, 15만명의 근로자가 근무 중인 G밸리의 대표 축제 'G밸리 위크'를 9월 9일부터 11일까지 3일간 비대면(온라인)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G밸리 비대면 위크'는 산업행사 ▲40개 해외 바이어 참여 수출상담회 ▲창업경진대회 ▲50개 기업 온라인 채용박람회 ▲80개 VC?엔젤투자자 참여 데모데이)와 문화행사 ▲구로공단 노동자생활 체험관 특별전 ▲게임대회 ▲영상문화제로 진행된다.

해외 바이어가 참여하는 수출상담회, 국내 벤처 투자자 80개사가 참여하는 데모데이, 50개 기업이 참여하는 채용박람회 등 G밸리 입주기업들을 위한 산업행사가 3일간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된다. 인도,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신흥 시장 국가 해외바이어 40개사와 G밸리 80개사가 참여하는데, 실질적인 수출계약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업별 전략분석, 화상장비와 통역 등 일체가 지원된다.

유망한 창업아이템을 발굴을 위한 창업경진대회의 결선도 온라인으로 생중계된다. 9월 10일 250개 팀 중 결선에 오른 13개 팀이



무관중 PT를 진행하며, 현장에서 최종 순위가 결정된다. 서울시장상, 산업자문부장관상 등 상장과 총 3400만 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구인·구직난이 극심한 가운데, 이를 극복하기 위한 채용박람회도 9월 7일부터 25일까지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IT, 의료, 제조 등 다양한 업종 50여 개 기업 구인 기업이 참여하며, 온라인 채용면접과 취업컨설팅이 이루어진다.

9월 11일에는 벤처캐피탈(VC)과 엔젤투자자 80개사가 참여하는 투자유치 설명회와 스타트업 데모데이(IR)가 진행된다.

게임대회, 영상문화제 등 게임인, 근로자, 지역주민이 모두 함

께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비대면 문화행사도 진행된다. G밸리 입주기업이자, 우리나라 대표 게임기업인 '넷마블'이 함께하는 게임대회가 9월 9일 열린다.

또 G밸리 기업의 각종 디지털 콘텐츠 영상을 상영하는 영상문화제를 3일간 진행한다. 주최측은 게임캐릭터·애니메이션 콘텐츠 영상 상영을 통해 시민에게 즐길 거리 제공한다.

G밸리의 전신이라 할 수 있는 구로공단의 노동자 생활체험관 특별전이 9월 7일부터 11일까지 5일간 온라인으로 개최된다. 구로공단 시절을 살아 온 사람들의 인터뷰, 사진 및 오디오 등 자료를 전시하고 쪽방 등을 AR콘텐츠화로 제작해 전시한다. 60~70년대 우리나라 수출산업을 이끈 노동자의 생활상을 엿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올해 5회를 맞는 '2020년 G밸리 비대면 Week'는 당초 코로나19 장기화로 취소 위기였으나, 서울시 및 유관기관 간 회의 결과, 코로나19로 인해 위축된 G밸리의 활성화를 위해, 다중운집이 불가피한 행사는 취소하고, 비대면 중심 행사로 기획했다. <채홍길 기자>

'포스트 코로나 시대' 정책 아이디어 공모

비대면 서비스, 일자리 창출, 관광·예술분야 활성화 방안 등

구로구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 정책 아이디어를 공모한다.

구는 "코로나19 이후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킬 수 있는 제도를 발굴, 도입하기 위해 정책 아이디어 공모를 실시한다"고 지난 7일 밝혔다.

공모 주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더 행복한 구로'를 위한 정책이다. 공모 내용은 ▲비대면 행정 서비스 및 방역대책 ▲지역경제 활력 회복을 위한 일자리 창출 방안 ▲돌봄 공백 해소와 관광·예술 활성화 방안 ▲기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필요한 정책 아이디어 등이다.

응모를 원하는 이는 이달 18일까지 구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모제안 신청서를 작성해 담당자 이메일(ks75@guro.go.kr)로 제출하면 된다. 구청 규정연구반으로 우편 제출도 가능하며, 마감일 오후 6시 접수분까지 유효하다. 참가자격에는 제한이 없다.

구로구는 제안 내용을 대상으로 실현 가능성, 창의성, 효율성 등을



평가해 우수제안 8개를 선정한다. 금상 1명 100만원, 은상 1명 50만원, 동상 1명 30만원, 격려 5명 각 10만원의 상금도 수여한다.

심사결과는 10월 중 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된다.

조병철 규정연구반장은 "이번 정책 아이디어 공모가 코로나19 사태 이후 새로운 희망을 위한 대안을 모색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주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 바란다"고 말했다.

문의) 구청 규정연구반 860-2076. <김유권 기자>

온라인 '수시대비 면접특강 프로그램' 마련

10월 8일 면접이론 강의, 10일 실전 모의면접 열려

구로구가 '수시대비 면접특강 프로그램'을 온라인으로 진행한다.

구는 "2021학년도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수험생들을 지원하기 위해 수시대비 면접특강 프로그램을 마련한다"고 지난 2일 밝혔다.

구로구는 먼저 10월 8일 면접이론 특강을 실시한다. 서울시 진학 지도협의회 교육석 연구위원이 입시면접의 기초와 이론에 대해 강

의한다. 오후 7시부터 1시간 30분 동안 실시간 온라인 강의로 열린다. 수강대상은 관내 거주 또는 구로구 소재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수험생 100명이다.

10월 10일에는 실전 모의면접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입시전문 강사진 10명이 참여해 수험생과 일대일 모의면접 시간을 갖는다. 모의면접 대상자가 사전에 제출한

자기소개서와 생활기록부 등을 토대로 맞춤형 입시 상담을 제공한다. 면접은 화상회의 프로그램을 통해 비대면 방식으로 치러진다. 수험생 1인당 30분씩 총 100명의 학생이 참여할 수 있다.

면접이론 특강과 모의면접에 참가를 원하는 수험생은 9월 23일까지 구로학습지원센터 홈페이지(<http://edu.guro.go.kr/study/>)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각 100명씩 선착순 마감한다.

문의) 구청 교육지원과 860-3028. <한만수 기자>

6·25참전유공자회원이 어려운 회원들에 쌀 전달

온수동 고광필씨, 이흥균 회장에 쌀 30포 기탁

80대 6·25참전유공자회 회원이 본인보다 더 어려운 회원에 전해 달라며 사비를 들여 백미 30포를 기탁해 지역사회 훈훈한 정이 넘치고 있다.

주인공은 오류1동에 거주하는 6·25참전유공자회 회원인 고광필(91세) 씨이다. 고 씨는 지난 8월28일 오후 3시 온수동 소재 구로구보훈회관을 방문해 6·25참전유공자회 구로지회 이흥균 회장(89세)에게 백미 10kg



30포를 생활이 어려운 회원들에게 전해달라며 전달했다.<사진> 고 씨는 지난해 8월에도 백미 10kg 30포를 기탁 하는 등 매년 꾸준히 선정을 베풀고 있다. <채홍길 기자>

감염경로 '오리무중' 구로1동 A아파트 12명 집단감염 서울시 '민관합동 역학조사단' 운영

9월말까지 감염경로 파악

서울시가 구로1동 A아파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12명 집단감염과 관련해 '민관합동 역학조사단'을 운영해 감염경로 파악에 나섰다.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지난 3일 오전 서울시장에서 코로

나19 정례브리핑을 열고 "구로구 A아파트 집단감염 관련 감염경로 파악을 위해 '민관합동 역학조사단'을 구성해 우선 9월말까지 운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조사단은 외부전문가 4명, 구로구청, 서울시, 질병관리본부에서 추천한 연구원 등으로 구성된다.

지난 7월23일 구로1동 A아파트

에서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집단 감염이 같은 호수라인 등서 발생해 12명이 확진됐다. 이 가운데 한명이 직원으로 근무하는 금천구 육류가공업체에서도 동료 직원 등 23명이 감염됐다.

구로1동 A아파트 집단감염의 경우 배기구를 통한 에어로졸(공기중 미세입자) 전파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했다.

시는 지난달 27일 1차 현장조사 후 감염경로 파악을 위한 1차 현장조사 후 환기구 외 엘

리베이터, 정화조 등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놓고 조사를 진행했다.

역학조사팀은 거주민 대상 설문조사도 실시할 예정이다. 시설조사팀은 환기, 오배수 설비 현황과 전파 가능성에 대해 조사할 계획이다.

박 국장은 "설문조사의 경우 확진자가 발생했던 동을 중심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역학적 부분을 밝히기 위한 것"이라며 "확진자들이 평상시에 승강기를 얼마나, 어

떤 시간대 이용하고 접촉한 사람들과 동선을 조사해 감염경로를 파악하겠다"고 말했다.

박 국장은 "구로1동 A아파트의 경우 옆 라인에서도 확진자가 발생했기 때문에 감염경로가 다르게 생겨날 수 있는 것에 대한 우려가 크다"며 "집단으로 거주하고 있는 거주시설인 아파트에 감염이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의혹을 해소하고 경로를 찾아내는 것이 조사의 목적"이라고 밝혔다.

<채홍길 기자>

전 동주민센터 '안면인식 체온측정 카메라' 설치

동주민센터 16곳, 자치회관 7곳 등 총 23곳 출입구 ... 비대면 발열체크
37.5도 이상·마스크 미착용엔 "출입 금지" 경고 음성 ... 방문기록도 보관

구로구가 관내 전 동주민센터에 '안면인식 체온측정 카메라'를 설치했다.

구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청사 방역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동주민센터 출입구에 '안면인식 체온측정 카메라'를 설치, 가동하고 있다"고 지난 1일 밝혔다.

이번에 카메라가 설치된 장소는 동주민센터 16곳, 동주민센터와 출입문을 따로 쓰는 자치회관 7곳 등 총 23곳이다.

'안면인식 체온측정 카메라'는 체온감지 패널과 인공지능 안면인식 장치를 통해 사람 간 접촉 없이 체온을 측정하고 마스크 착용 여부도 확인하는 기기다.

방문자가 안면인식 체온측정 카메라의 1m 앞에 서면 즉시 정상,



구로구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청사 방역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관내 16개 동주민센터와 자치회관 7곳 등 총 23곳 출입구에 '안면인식 체온측정 카메라'를 설치했다.

비정상(37.5도 이상), 마스크 미착용('턱스크' 포함) 등 3가지 유형으로 분류한다. 비정상, 마스크 미착용에 대해서는 음성 경고("이상 온도입니다" "마스크가 없습니다")를 통해 출입을 통제한다.

이 밖에도 자동으로 방문 기록을 저장해 확진자 방문 시간대의 출입

인원을 조기에 파악할 수 있다.

곽정희 자치행정과장은 "안면인식 체온측정 카메라 설치로 안전하고 체계적인 출입자 관리가 가능해졌다"며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공공시설 방역관리에 빈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유권 기자>

'차량 탑재형 이동식 선별진료소' 자체 개발

차량 통행 가능 어디서든 검사 ... 보건소 직원 아이디어로 제작
투명창 비접촉 검체 채취... 음·양압 장치로 방호복 없이도 검사

구로구가 '차량 탑재형 이동식 선별진료소'를 자체 개발해 활용하고 있다.

구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집단감염 발생 현상으로 나가 검사를 해야 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며 "이에 따라 신속하게 검사할 수 있도록 차량 탑재형 이동식 선별진료소를 자체 개발해 현장에서 활용하고 있다"고 지난 3일 밝혔다.

'차량 탑재형 이동식 선별진료소'는 트럭 적재함에 진료부스가 설치된 '바퀴 달린 선별진료소'로 차량이 통행할 수 있는 곳이면 어디서든 검사가 가능하다. 임시 선별진료소를 여러 차래 설치해 본격 경험이 있는 구로구보건소 직원이 아이디어를 냈다.

구로구는 지난 3월 콜센터 감염이 발생하자 현장에 임시 선별진료소를 설치하고 국내 최초 워킹스루 방식으로 3일간 1,121명을 검사한 바 있다. 이후에도 교회, 어린이집, 버스회사 등 수차례 임시 선별진료소를 만들어 검사했다.

기존 임시 선별진료소는 천막으로 설치됐다. 의료진과 검사 대상자 간 접촉을 막기 위해 보호장비를 갖춰야 해 장시간 검사 시 의료진 탈진 등의 어려움이 있었



구로구가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집단감염 발생 현상으로 나가 검사를 해야 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어 '차량 탑재형 이동식 선별진료소'를 자체 개발, 운용하고 있다.

다. 천막, 테이블, 의자 등 선별진료소 설치를 위한 준비 시간도 필요했다.

구로구는 '차량 탑재형 이동식 선별진료소'를 통해 이런 문제점들을 개선했다. 내부 진료부스를 만들어 검사 대상자와 접촉 없이 투명창 구멍으로 검체채취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바이러스 유입을 차단하는 음·양압 장치가 작동돼 의료진은 방호복을 입지 않고도 검사할 수 있으며, 차량에 설치되어 빠른 이동도 가능해졌다.

차량 탑재형 이동식 선별진료소는 지난달 25, 26일 구로구 관내 A아파트 주민 검사에서 첫 선을 보였다.

오광환 지역보건과장은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빠르게 확진자들을 찾아내 접촉자를 분류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며 "'차량 탑재형 이동식 선별진료소'를 통해 코로나19와의 속도전에서 더욱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채홍길 기자>

관내 확진자 증가 주춤세... 모두 154명

구로구 관내 코로나19 확진자가 주춤세를 보이고 있다. 9월8일 현재 154명으로 10여일 사이 14명이 늘었다. 10여일 전 40여명이 급증했던 시기에 비해 현저하게 줄었다.

정부가 지난 6일부터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로 격상하고, 또 13일까지 연장하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이 되기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 2일 152번 확진자(58세) 관내 보성운수 시내버스 기사)가 발생이후 5일만인 7일 2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보성운수 관련 확진자는 모두 4명으로 늘었다.

구로1동 A아파트 집단 확진자는 2명이 늘어 모두 12명이다. 주민 1명이 지난 달 23일 최초 확진 판정을 받은 후 24일까지 2명, 25일 2명, 26일 3명, 이후 4명이 추가됐다.

확진자가 발생한 구로1동 A아파트 해당 동은 262세대 430여명이 거주하고 있다. 이 아파트는 9

월 한달간 서울시에서 관련 감염 경로 파악을 위해 '민관합동 역학조사단'을 구성해 9월말까지 운영한다. 조사단은 외부전문가 4명, 구로구청, 서울시, 질병관리본부에서 추천한 연구원 등으로 구성된다.

구는 또 확진자 1명이 발생한 구일탁구클럽을 전수검사한 결과 전원 음성판정을 받았다고 지난 31일 밝혔다.

구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8월 27일 확진판정을 받은 구로구 137번 확진자가 지난 21~23일 구일탁구클럽을 방문 했었다"며 "해당 날짜에 탁구장을 방문한 71명을 대상으로 전수검사를 실시한 결과 전원 음성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8일 현재 구로구 관내 확진자는 154명으로 치료중 51명, 완치자 103명이며 자가격리자는 밀접접촉자 154명, 해외입국자 263명 등 모두 419명, 능동감시대상자 1명이다.

한편 구로구민의 감염경로별 확진자를 보면 구로콜센터 관련 20명, 만민교회 10명, 부천시 구광 5명, 리치웨이 16명, 해외 유입 3명, 타시도 확진자 접촉자 87명, 기타 13명으로 집계됐다.

한편 서울시 확진자는 8일 현재 모두 4,429명으로 구청별로 보면 ▲사랑제일교회 소재 성북구가 304명으로 300명을 넘어섰고 ▲관악구 293명 ▲송파구 279명 ▲노원구 266명 ▲강서구 236명 ▲강남구 212명 ▲은평구 212명으로 7개구가 200명을 넘었고 ▲동작구 188명 ▲중랑구 170명 ▲강동구 168명 ▲양천구 160명 ▲영등포구 159명 ▲서초구 159명 ▲구로구 154명 ▲도봉구 151명 ▲마포구 144명 ▲동대문구 131명 ▲강북구 129명 ▲광진구 111명 ▲용산구 108명 ▲서대문구 105 ▲성동구 104으로 모두 22개구가 100명이 넘었다. 이어 ▲금천구 78명 ▲종로구 68명 ▲중구 54명으로 그 뒤를 잇고 있다. <채홍길 기자>

관내 병원·요양병원 전자출입명부 도입

구로구가 관내 병원·요양병원의 전자출입명부 시스템 도입을 위해 애쓰고 있다.

구는 "의료기관은 전자출입명부 의무 대상은 아니지만, 감염 취약계층이 많고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인 만큼 확진자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 전자출입명부 이용을 유도하고 있다"고 지난 7일 밝혔다.

구로구는 지난달 관내 요양병원 9곳과 '집단감염 발생 제로(ZERO)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에이치플러스 요양병원이 인공지능형 출입관리 시스템을 도입해, 발열체크와 안면인식을 통한 마스크 착용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협약에 참여



한 다수의 요양병원들이 전자출입명부를 도입할 계획이다.

또한 관내 예스병원(사진)은 전자출입명부 도입과 모든 입원환자 대상 코로나19 검사 등 방역관리 강화에 힘쓰고 있다. 이외에도 고대 구로병원, 아름제일여성병원 등이 QR코드를 활용한 전자출입명부를 시행하고 있다.

송은철 의과과장은 "앞으로도 관내 의료기관의 빈틈없는 방역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유권 기자>

경비원 취업지원 프로그램 수강생 모집

중장년층 재취업 활성화 교육부터 취업까지 논스톱 지원

구로구가 '경비원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구는 "경비직 취업에 대한 중장년층의 높은 구직 수요를 반영해, 신입교육부터 취업까지 논스톱으

로 지원하는 경비원 양성 과정을 마련한다"고 지난 1일 밝혔다.

'경비원 취업지원 프로그램'은 9월 14일부터 16일까지 하루 8시간씩 3일 과정으로 진행된다. 경

비업법, 범죄예방론 등 이론교육과 경비실무, 사고예방대책, 체포호신술 등 실무교육으로 구성된다. 교육비는 전액 구에서 지원한다. 단,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교육일정이 변경될 수 있다.

교육대상은 관내 만40세 이상 주민 40명이다. 문의) 구청 일자리지원과 860-2045. <한만수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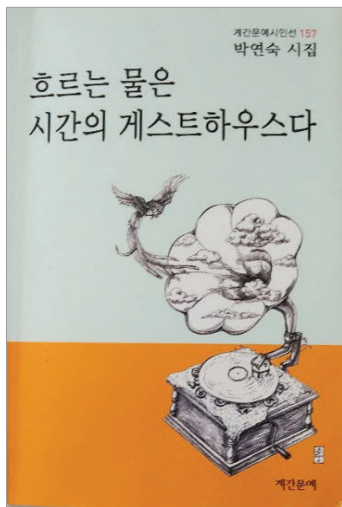
박연숙 시인 첫 시집 '흐르는 물은 시간의 게스트하우스다' 펴내

5부로 나눠 75편 실려... "자신의 창조적 개성 펼쳐"

박연숙 시인의 시집 '흐르는 물은 시간의 게스트하우스다'가 계간문예시인선 157로 나왔다.

이 시집은 5부로 나누어져, 1부에는 거꾸로 가는 기자의 15편, 2부에는 디렉트 인터뷰의 15편, 3부에는 포노 사피엔스, 아르카의 미소의 15편, 4부에는 고뇌의 어깨에 평온을의 15편, 제5부 상트페르르의 모호한 아름다움의 15편의 작품해설이 실렸다.

박연숙 시인은 첫 번째 처녀 시집을 통하여 "예술과 삶의 경계가 없듯 '시가 삶이고 삶이 시다' 흐르는 물의 게스트하우스를 따라 깊은 고뇌와 관조를 통해



조용하고 신선한 충격을 주는 율림을 시집을 통하여 주고자 한다

다"고 했다.

조명제 시인은 박연숙 시인의 시집에 대해 "초현실적 인식과 방법의 화가 시인으로서 도발적이고 환상적 회화 및 작사의 영역을 구축한 시인이다. 그는 그림과 서예와 시를 두루 껴안고 자신의 창조적 개성을 펼쳐가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노유섭 시인도 "디지털시대의 첨단 현대를 노래하면서 고졸한 아날로그적 과거를 음미하고 있다"고 말했다.

도서출판 계간문예시인선 157번째 시집 180페이지, 정가 10,000원이다. <김유권 기자>

순수문예지 '문학광장' 84호 나왔다

시·수필 신인문학상 당선작, 심사평·소감 등 실려

구로지역의 순수 문학잡지인 격월간 '문학광장' (발행인 김옥자)이 지난 1일자로 2020년 9-10월호인 통권 제84를 발간했다.

이번 84호에는 김옥자 발행인의 '苦盡甘來 文學' 과 허남기 문학광장 문예대학 부학장의 '初心, 그 첫걸음처럼 글을 쓰는 마음' 주제로 권두언이 실렸다.

'9-10월 여는시'에는 김유권(구로오늘신문 대표)시인의 '내가 앉은 바다와 그 가슴'이 실렸고 '이달의 시인'엔 이순분 시인의 '비오는 날 풍경'의 4편과 '이달의 수필가'엔 장광현씨의 '산행, 일상 탈출'의 1편이 게재됐다.

순옥, 이재철, 이희원, 장진천, 엘튼정, 최경순 시인 등 25명 회원들의 주옥같은 시가 수록 됐고 신작수필엔 기라성, 김만수 수필가의 작품이 실렸다.

또 신작소설에는 고승우씨 작품과, 신작동화엔 김동미 작가의 작품이 게재됐다.

또한 신인문학상 당선작으로 시부문에 정석수씨, 정엄니씨, 최한수씨, 황정훈씨와, 그리고 수필부문에 권영순씨, 김금희씨, 박 경씨의 작품 및 당선 소감과 전문가 심사평이 자세하게 실렸다.

특집으로 김종위 전 환경부장관(수필가)의 초대칼럼 '고디이바



부인 이야기'와 김선균 황금찬 시맥회 위원장의 '제6회 황금찬 문학상 시상식을 마치고'가 실렸다. 또 한병진 시인(문학광장 카페운영위원장)의 '나의 문학관'이 게재됐다. <채홍길 기자>

초대시

붓, 춤을 추다

瑞河 이소연



화선지가 무대인 무용수 심호흡을 한 뒤

발끝으로 먹물을 찍어 춤을 춘다

좌우 시공을 살피다가 몸을 번쩍 들어 올린 여백의 추임새

한 획 한 획이 기대어 문장이 되는

행간마다 출렁이는 몸짓 흥겹다

동작 빠른 몸놀림일수록 멈출때를 안다

수백 번 넘어지고 미끄러져 눈물은 흘러도 절대 울지 않는

붓은 우주 바다에서 한 장의 명필을 건져 올릴 뿐

"명마는 길을 닦하지 않아"

일필휘지로 지휘하는 화선지 위의 붓, 꼬리가 길다

●이소연

사한국문인협회 대외협력위원, 사한국문인협회 구로지부 부회장, 한국문학예술주간, 저서: 시집 <건반 위의 바다> 외, 음반 <건반 위의 바다> 외 100여 곡

구로문화재단, 구민들 옛 추억 영상 상영 전시회 개최

8~12일 신도림 다목적홀B서 '그 시절, 추억속으로展'

구로문화재단에서는 9월 8일부터 12일까지 <아날로그 비디오 변환 프로젝트 영상 상영전시 - 그 시절, 추억속으로展> 영상 전시를 서울생활문화센터 신도림 다목적홀B에서 진행하고 있다.

'그 시절, 추억속으로展'은 지난 6월 구로구민을 대상으로 진행한 '아날로그 비디오 변환 프로젝트'로 복원된 영상물을 영상 상영으로 진행하는 전시다.

장롱 속 보관되어 온 아날로그 비디오 테이프 꺼내어, 변환 신청자에게는 그 시절의 추억을 되짚어 볼 수 있도록 하고, 영상 상영

전시를 통해 옛 시절 구로구민의 기억을 공유하고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획했다.

이번 영상 전시는 전시공간을 개방하지 않고 윈도우 깔러리로 운영하며 사전예약 없이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또한 구로문화재단 및 서울생활문화센터 신도림 SNS채널에서 온라인으로도 감상 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구로문화재단 홈페이지(<https://www.guroartsvalley.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 서울생활문화센터 신도림 02)867-2208. <채홍길 기자>

www.songlinga.com

함께 있어 좋은 날엔 더 좋은 곳에

사랑하는 가족과 맛있는 즐거움을 나눌 수 있는 행복한 공간

정성 그리고 맛
음식점의 성패는 고객에 대한 마음가짐, 인생의 레시피는 '사람과 함께 하는 여정'

정직 그리고 멋
진심이라는 빛과 물을 줄 때 마음은 비로소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는다

성실의 향기
소나무도 5년이 되어 푸리를 내리듯, 기다림을 통한 '행복한 향기'를 나누는 사람

풍미가 담긴 肉의 名家

송림가 예약문의 02.2066.6000

정통의 맛을 담은 宗食 名家

실크로드 예약문의 02.2066.6100

